

大宗院傘下 地域宗親會長協議會 結成

대중원산하

지역종친회장협의회 결성

지난 9월8일 11시 안동권씨대중원 지역종친회장과 총재단 등 50여인이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대중원에 참석하여 종친회장협의회(宗親會長協議會)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대중원 창립 후 처음으로 전국 종친회장이 모였으며 협의회의 성격은 친목단체로서 지역간 교류협력과 종친회의 종합적 의안을 중무위원회에 반영함으로써 종친회발전을 도모하는 대중원 산하의 중요한 조직이다.

처음 개최하므로 권경석 사무총장이 사회를 보면서 시조묘소에 망배를 올린후 종친회장을 도(道)단위로 일일이 소개하였다.

이어서 권정달 총재는 축하 겸 인사로 추석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회장님이 많이 참석해주셔서 거듭 감사드리다 하며 지난 6월 7일 안동권씨대중원(安東權氏大宗院)이 창립되고 8월 31일 파총회장협의회(派宗會長協議會)가 결성되었으며 오늘 지역종친회장협의회를 개최함에 있어



9.8 서울 용두동에서 안동권씨 지역종친회장협의회를 개최하여 권정달 총재가 인사말을 한 후 토론 끝에 권길상 부산종친회장(왼내)을 협의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지역간 상부상조와 협력 그리고 사회윤리배양 등 오늘을 계기로 아직 결성되지 않은 지역은 종친회를 활

성화 하여 종친간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서로 돕는 문중조직으로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협의회장 선출에 들어가 몇 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어렵게 모인 자리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출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기로 하였다. 협의회장은 권영성 영천종친회장(본원 부총재)이 발의하여 권길상(權吉相) 부산종친회장(본원 부총재)이 다년간 문사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애착심을 견지하고 있으니 협의회장으로 적임이라고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부회장은 전 영주시장인 권영창(權寧昌)영주종친회장과 참의공중중이사장인 권호준(權鎬俊)대전종친회장을, 감사는 권재주(權

在珠)안동화수회장(본원 부총재)을 선출하였으며 김상협의회장은 권영갑(權寧甲)수원종친회장을 총무로 선임하였다. 이로써 대중원 산하에 해외포함 총 62개 지역종친회로 협의회가 결성되었다.

정례모임은 추향제일 행사를 마치고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춘향제일 또는 필요시 갖기로 하였다.

협의회 회칙은 집행부에게 위임함으로써 회칙을 마련하여 차기 정기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하였다. 회의를 마치고 화기에애한 가운데 오찬을 나누며 추석에 임박하여 권정달 총재는 안동간고등어 1손씩을 선물하였다.

〈편, 사진 권범준기자〉



우로부터 권재주 감사, 권길상 협의회장, 권영창, 권호준 협의회 부회장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크게 활동

권도엽(58.의성 부정공파35世)국토 해양부 장관이 지난 5월31일 취임해 국내, 외적으로 크게 활동하고 있다. 권 장관은 건설부와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주요 직책과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을 거치면서 어느 누구도 그의 청렴성은 의심하지 않을 정도이다. 실제 그는 국내의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선후배들이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놓고 가면 다시 돌려주곤 해 '정(情)도 모른다.' '윙통성이 없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청렴한 공직자상을 실천하고 있다.

“공직생활을 하는 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지, 무엇인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 돌아가신 부친이 가훈으로 남긴 ‘근면, 성실, 정직’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정도’와 ‘정직’한 삶을 자녀들도 빼닮아

가고 있어 걱정이라고 그는 웃었다. 언젠가 경기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에 있는 ‘세미원’이라는 자연휴양림 비슷한 곳에 예약 없이 갔다가 입장이 어렵게 되자 지인에게 부탁, 입장을 허락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자녀들이 정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반대해 그냥 돌아왔다고 했다.

그는 국가정책 추진 시에는 강단 있는 면분도 보여주곤 했다. 2004년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시절 열린 우리당의 아파트 분양원이 공개 압박을 ‘직’을 걸고 막은 것은 잘 알리지 않은 일화이고, 당시 건교부는 공개가 어렵다고 했으나 경실련 등에서 강력 반발하여 이슈화하자 당정협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당시 천정배 원내 대표 등은 분양원이 공개를 강력 요구, 공개를 반대한 정부 측이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뒷자리에 배석했던 권 장관(당시 주택국장)이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분양원이 공개 반대 이유를 살펴해 결국 토지비, 건축비 등을 공개하는 선에서 봉합했다고 한다.

경북 의성 육산면의 작은 농촌마을에서 태어난 권 장관은 중학교에서 다녔지만 스스로를 ‘촌놈’이라고 표현한다. 면장으로 퇴직한 부친이 박봉의 공무원 생활을 해 방학 때면 농사를 도우러 고향에 가는 일이 잦았다. 그는 토목공학을 전공했지만 공무원이 된 것은 부친의 영향이 컸다. 부친은 전형적인 시골 공무원답게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돼 군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아들을 설득했다. 결국 그는 1978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2007년 말 행정고시 동기인 이춘희 차관이 부임하자 용퇴했던 권 장관은 건설교통 행정단 30년을 넘게 해 자타가 공인하는 건설 주택 전문가이다.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의 길이, 미분양아파트 숫자 등 전반적인 국토행정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어 직원들이 절대 일렁뚱뚱 넘어갈 수 없다고 한다.

◆ 경력 △1953년 경북의성 태생 △경기도, 서울대 토목공학과 △시라큐스대 석사 △행정고시 21회 합격 △국세청 안동 세무소 △건설교통부 총무과장, 국토정책국장, 주택국장, 차관보 △한국도로공사 사장 △국토해양부 제1차관 〈편〉

독립군의 산실 만주 신흥무관학교, 안동권씨가 설립하다

부정공파 대애실 주손, 추산 권기일 선생이 거액 투자해



중국 길림성 통화시 합리하 신흥무관학교 옛터에서 안동출신 항일순국지사 추산 권기일 선생의 손자 권대용씨가 옥수수밭 앞에서 추산선생의 영정을 세우고 절을 하고 있다.



추산 선생이 순국한 장소인 신흥무관학교 주변 옥수수밭에서 손자 권대용씨가 할아버지의 초상화를 들고 감회에 젖어 있다.

에 참가한 독립군 상당수가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었음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19년 8월 추산선생은 상해 임시정부 연락임무를 수행하다 일본 경찰에 붙잡혀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간신히 탈출에 성공하지만 다음해인 1920년 5월 이후 넉달간 계속된 일제의 간도 학살을 온몸으로 저항해야만 했다. 통화시 일원에 남은 우리 동포들을 지켰다. 하지만 그제 마지막이었다. 그해 8월 15일 혈혈단신 혼자 남아 신흥무관학교를 시수하던 추산선생은 학교 북쪽편 산을 넘어 학교 안으로 쳐들어 온 일본군의 습격에 끝까지 항전했으나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어 학교 인근 옥수수밭에서 그만 포위당하고 말았다. 여름 장마철인 관계로 합니하 강물이 불어나 재빨리 피신하지 못했을까? 그의 나이 34살 때였다. 유족들에 따르면 포위 당한 추산선생은 끝까지 독립만세를 외치다 일제의 총검에 의해 전신을 20여차례나 난자당해 결국 순국했다고 한다. 최후의 일각

까지, 최후의 일인으로 독립운동의 토대인 신흥무관학교를 지키다 홀로 순국한 불굴의 정신은 길이 이어가야 할 우리 민족정신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안동권씨 부정공파 대애실 주손인 추산의 전 재산이 독립운동의 초기 난관을 돌파하고 신흥무관학교 이전 학장에 다 들어갔다는 사실이 차츰 밝혀지게 되자 추산의 손자 권대용(63)씨에 대한 관심이 높게 일고 있다. 독립운동을 위해 매각한 추산선생의 생가를 다시 되찾아 돌려줘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김희곤(안동대교수) 안동독립운동기념관장은 최근 추산과 그의 후손에 관한 책을 냈다. '순국지사 권기일과 후손의 고난'이라는 책이다. 이전에도 '독립운동으로 쓰러진 한 명가의 슬픈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추산의 일대기를 책으로 엮어내 인기를 끌기도 했다.

택시운전을 하면서 어렵사리 생계를 유지하지만 손자 대용씨는 명가의 후손답게 매우 당당하다. 명문가의 자부심과 독립운동가의 손자임을 결코 잊지 않는다. 올 여름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만주 통화시 신흥무관학교를 찾아 추산 선생의 넋을 기리는 제사를 올리기도 한 대용씨는 삼복지간 무더위에 도 양복 상의를 벗지 않을 정도로 항상 단정한 자세를 흐트리지 않는다. 아직도 자신의 할아버지인 추산의 산소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그는 광복회 안동지회 사무국장, 안동독립운동기념관 운영위원, 광복회 대의원으로서 안동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 권동순기자〉

安東權氏宗報

宗是：崇祖理念確立・愛族思想鼓吹
後學啓導寄與・社會倫理培養

발행인 權正達 편집인 權景晸 인쇄인 權寧雄

발행장소：安東權氏大宗院：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5-3(2층)
우：130-820 전화 (02) 2695-2483/4 FAX (02) 2695-2485
安東事務所：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418-1(3층)
우：760-905 전화 (054) 854-2256 FAX(054)854-2257
테사코 안내：(054)859-2346

E-mail：ankwonjung@yahoo.co.kr / andongkwon@paran.com

編輯委員	권계동, 권오복, 권태하
記 者	권범준, 권오인, 권혁세, 권경일
자문위원	권정달 권영한 권태하 권영실 권오창

예금주 및 계좌번호(종친회, 대중회)
권 경 석 국민은행 448601-01-378019
(중앙종친회) 농 협 076-02-247343

중보사(개인독자)
우체국：중보사
010108-01-000369

尊敬하는 全國地域宗親會長님께

지난 9월8일 우리 安東權門이 有史以來 最初로 全國地域宗親會長團聯合協議會를 構成하고 協議會 會長團과 重要任職에 選出하여 주심으로 所任에 誠心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地域宗親會 運營의 어려움을 以心傳心으로 共感하면서 이를 克服하고 崇祖理念의 確立과 愛族思想의 鼓吹에 最善을 다하고 있는 우리 地域宗親會長團은 大宗院이 指向하는 課業遂行에 先鋒의 役割을 하는 主體가 되어 健全하고 燦然한 民族文化의 꽃을 피우고 全國宗親會의 和合隆盛의 原動力이 되도록 아래와 같이 全國地域宗親會長協議會 定期總會를 갖고자 하오니 會長님들께서는 바쁘신日程을 미리 調定하셔서 可及의 全員參事하여 주시기 敬望합니다.

- 아래 -

日時：11月8日(陰10月13日中丁日) 능동 향사 후
場所：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번지(陵洞齋舍)
議題：會則制定과 運營大綱

2011. 09. 16

安東權氏 全國地域宗親會長團 協議會
會 長 權 吉 相(부산종친회장) 011-840-9595
副會長 權 鎬 俊(대전종친회장)
副會長 權 寧 甲(영주종친회장)
監 事 權 在 珠(안동화수회장)
總 務 權 寧 甲(수원종친회장) 010-8849-7047

제3회 효문화 뿌리축제 안내

대전광역시청 주최로 효문화 뿌리축제를 전국 136개 성씨들이 모여 아래와 같이 개최하니 오문의 많은 족친께서 참석하여 안동권문을 빛내주기 바랍니다.

일시：2011년 10월7일~9일(3일간)
기념행사 및 공연：10월7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장소：대전시 중구 칠산동 뿌리공원
교통편：대전남부고속도로 안영IC -뿌리공원(5분)
대전역 313번 시내버스(약 30분)

安東權氏大宗院 總裁 權正達
大田宗親會長 權鎬俊